

한국에서 『古文眞寶』의 유입과 간행

- 고려 말·조선 초 『諸儒箋解古文眞寶』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Publication of *Guwenzhenbao* in Korea

- Focused on *Zhurujianjieguwenzhenbao* betwee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

김 시 내 (Kim, Si-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4.2 조선초 옥천에서의 |
| 2. 중국에서 『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 |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간행 |
| 3. 고려말 『고문진보』의 유입 | 5. 결 론 |
| 4. 고려말·조선초의 간행 | <참고문헌> |
| 4.1 고려말 합포에서의 『고문진보』 | |
| 간행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고려말·조선초 『제유전해고문진보(諸儒箋解古文眞寶)』의 유입과 간행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고려 말에 유입된 『고문진보』는 공민왕대 전녹생(田祿生)이 외교사절로 확장첩목아(擴廓帖木兒)를 방문(聘問)하러 갔다가 경유지인 연경(燕京)에서 구해온 것으로, 그 시기는 1366년(공민왕 15)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 해인 1367년(공민왕 16) 합포(合浦)에서 전녹생이 경상도 도순문사로 진무하는 여가에 『고문진보』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고르게 발달한 지방 인쇄술과 그에 따른 공인(工人)의 존재와 활동에 힘입은 바 있다. 또한 석두창의 설치와 운영에 의한 인구의 집중과 교통망의 발달은 출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1420년(세종 2)에 옥천에서 간행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는 충청감영(忠淸監營)이 공주(公州)로 이 전하기 전에 간행된 것으로, 전녹생의 손자 전예가 가지고 있던 것을 본 충청도관찰사 강희중의 명에 의해서 간행되었다. 이것은 감영의 간기(刊記)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충청감영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한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이전의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수용과 간행은 시간적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충청도로 걸쳐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보다 연속적 시각으로, 지역적으로는 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인쇄·출판 양상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要語: 『古文眞寶』, 『諸儒箋解古文眞寶』, 田祿生, 田藝, 姜淮仲, 李護, 擴廓帖木兒, 黃堅, 合浦, 沃川, 忠淸監營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cinekim@pusan.ac.kr)

투고일: 2019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9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4일

서지학연구, 제80집, 79-111,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79>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cceptance and publication of *Zhurujianjiuguwenzhenbao* (諸儒箋解古文眞寶) betwee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analyzing bibliographic items from the historical records and references that remain today.

Guwenzhenbao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by a diplomat named Jeon Nok-saeng (田祿生)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On his way to Kokotemur (擴廓帖木兒), he had a chance to stop by a city called Yenjing (燕京) and brought the book with him. It is estimated that it was around 1366.

It was the binary publication culture and the artisans that enabled Jeon Nok-saeng release the first edition of *Guwenzhenbao* in 1367, while he was in charge of governing Hapcho (合浦) area as the Dosunmunsa (都巡問使) of Gyeongsang-do Province. Back then, the local publication was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staying independent from it, which fueled the development of local printing skills. Also, high population densit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system, result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Seokduchang (石頭倉), helped the printers gain access to the resources they needed to publish books.

The one issued at Okcheon (沃川) area in Chungcheong-do Province in 1420 was published before the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moved to Gongju (公州). Though it was authoriz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it is not certain that it was actually issued in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as it does not have any authentic colophon of Chungcheong Provincial Office.

History shows that the acceptance and publication of *Zhurujianjiuguwenzhenbao* extend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erms of time and from Gyeongsang-do Province to Chungcheong-do Province in terms of place. It indicates that prior to *Xiangshuoguwenzhenbaodaquan* (詳說古文眞寶大全), which gained popularity throughout Joseon Dynasty, *Guwenzhenbao* had been brought in and published.

Key words: *Guwenzhenbao*, *Zhurujianjiuguwenzhenbao*, Jeon Nok-saeng, Jeon Ye, Gang Hoe-jung, Lee Ho, Kokotemur, Huangjian, Hapcho, Okcheon, Chungcheong Gamyeong

1. 서론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독서의 영역에서도 종이책은 물론이고 ‘크레마’나 ‘킨들’과 같은 전용 단말기를 통한 전자책의 독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목판이나 활자판에서 찍어내는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수작업으로 책이 만들어졌던 과거에는 책을 접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에게도 독서, 특히 문학 읽기에 대한 욕구는 있었고, 그들이 접하는 작품에도 옥석(玉石)이 있었기에, 좋은 작품을 선별하여 읽는 것은 책을 구하기 힘든 그들의 독서 효율성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선집(選集)’의 편찬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시문선집인 『고문진보』는 송(宋)대 구양수(歐陽修)·소식(蘇軾) 같은 대가들에 힘입어 고문운동(古文運動)¹⁾이 확산된 뒤에 원대(元代)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고,²⁾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로 학습서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사실은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이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공부할 때에는 모두 『십구사략(十九史略)』과 『고문진보』를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는 문으로 삼고 있다.”³⁾고 한 사실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연보(年譜)에는 “12세에 『중용(中庸)』, 『고문진보』, 『맹자(孟子)』 등의 책을 읽었으며, 13세에 『사략(史略)』을 읽었는데 문리가 통창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⁴⁾ 1575년(선조 8)에 선조(宣祖)가 이이(李珥, 1536~1584)의 문장실력을 칭찬하며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지 물으니, “일찍이 『고문진보』와 『시경(詩經)』·『서경(書經)』을 공부했다”고 답했던 일⁵⁾ 등을 통해서도 당시 학동(學童)들에게 중요한 한문 교재로 널리 읽혀온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동한부터 위진남북조를 거쳐 초당에 이르는 시대는 문장의 성률(聲律)과 형식 및 사조(辭藻)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유티주의적 시대였다. 그 결과 시에 있어서는 근체시가 이룩되었고, 산문에 있어서는 변려문(駢儷文)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문장의 실용성은 외면한 귀족취미적인 문학사조였다. 고문(古文)운동은 이러한 시대조류에 의문을 품고 저항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수(隋)의 이악(李諤)·왕통(王通)에 싹이 터 당(唐)의 진자양(陳子昂)으로 이어지고 원결(元結)과 독고급(獨孤及)을 거쳐 한유(韓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 동지로는 유종원(柳宗元)이 있고, 문인 이고(李翱)와 장적(張籍)이 그를 계승한 다음 송(宋)의 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 등에 이르러 대성된다. 고문운동을 집대성한 한유는 “문자관도지기(文者貫道之器)”라고 선언하여 문장이란 도 전달의 수단인 이상 쓸데없는 문장의 수식이나 성운(聲韻)을 중시하는 변문(駢文)을 반대하였다. 즉 유교의 잃어버린 도통을 찾아 복고를 하여 도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고문을 주장한 것으로 고문운동은 문체개혁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일종의 사상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김학주, 『중국문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16), 153-348.).

2)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11.

3) 柳夢寅 지음, 玄惠卿 外 역주, 『於野談 2』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122.

4) 성백효, 이성우 옮김, 『高峯全書』 高峯年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7.).

“十二歲。讀中庸古文眞寶孟子等書。十三歲。讀史略。文理渙然。”

5) 『宣祖實錄』 宣祖8年 6月 24日(辛卯).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통된 『고문진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고려 말에 전래된 『제유전해고문진보』가 아닌 1450년(세종 32)에 전래된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⁶⁾ 김운수(1988)는 “『상설고문진보대전』과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가 다같이 『고문진보』로 통칭되어 그냥 『고문진보』하면 둘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⁷⁾한 바가 있고, 류탁일(1989)도 현재 유포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상설고문진보대전』이라고 보았다.⁸⁾

이러한 연구사를 고려할 때, 정재철(2007)의 연구가 주목된다.⁹⁾ 이 연구에서 정재철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상설고문진보대전』에 대하여서만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그 이전에 전래된 『제유전해고문진보』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 인식(2-3쪽)을 바탕으로 『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자 및 판본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내용의 조직까지 망라적인 연구가 선구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 원대(元代) 판본(‘魁本’으로 약칭)과 중국 명대(明代) 판본(‘弘治本’과 ‘萬曆本’으로 약칭)을 양분하면서, 조선 전기 옥천 간행본(‘善本’으로 약칭)을 원대 판본에 포함하여 서지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아울러 분석함에 따라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유입 및 간행과 관련한 고려 말·조선 초의 출판 문화적 상황 및 현전본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래 문헌의 국내 유입과 초기 수용을 분석할 때 단순한 간행 연대·간행 주체의 고증에서 진일보하여 한 시대가 겪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책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관심, 당시 인쇄술의 발달 수준과 연관 지어 고찰해 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책에는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온축(蘊蓄)되어 있고, 출판된 책은 사회시스템의 정신적·물질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문진보』의 경우 『제유전해고문진보』를 중심으로 하여 초기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현재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말·조선초에 『제유전해고문진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전래되어 간행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연구가 전개되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서적교류를 포함한 고려 말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최초 전래자로 알려진 ‘전녹생(田祿生, 1318~1375)’이라는 한 인물의 관직 및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유입 경로를 추적하였다.

6) ① 천혜봉,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趙炳舜氏 所藏本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제61집(1974. 3), 103-122.

② 김운수, “『詳說古文眞寶大全』과 『批點古文』,” 『中國語文學』 제15집(1988), 179-228. ③ 김운수, “泰仁坊刻本『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 제5·6합집(1990. 6), 355-401. ④ 정재철, “『詳說古文眞寶大全』 연구: 도학적 문학관의 적용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32집(2003), 23-57. ⑤ 김학주, “조선 간 『상설고문진보대전』,”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11-121.

7) 김운수(1988), 189.

8)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194.

9) 정재철 “『제유전해고문진보』 연구,” 『東洋學』 제42집(2007. 8), 1-25.

『제유전해고문진보』의 간행과 관련한 연구는 문헌의 간행 및 전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책판목록, 장서목록, 『고려사』, 『왕조실록』 등의 사료와 전녹생이 남긴 시문과 전녹생에 관한 직·간접기록을 모은 『야은일고(檉隱逸稿)』 등의 기록에 제시된 기록을 수집하여 이를 각각 고려 말, 조선 초의 인쇄 문화의 발달수준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목록 및 각 소장기관의 서지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존 판본의 소재 및 서지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제유전해고문진보』를 수용했을 당시인 고려 말에 해당하는 원대(元代) 판본의 유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원대(元代)이후에 간행된 『고문진보』 판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어서 유통된 『고문진보』는 크게 고려 말 전녹생(田祿生, 1318?~1375)이 함포(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간행한 것, 강희중(姜淮仲)이 1420년(세종 2)에 전녹생의 손자인 전예(田藝)의 소장본을 보고 옥천에서 새로 간행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그리고 명대(明代)의 한림시독(翰林侍讀) 예겸(倪謙)이 1450년(세종 32)에 가지고 온 『상설고문진보대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¹⁰⁾ 이 연구에서는 고문진보의 초기 전래 및 간행 양상을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설고문진보대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중국에서 『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

『중국고적선본서목(中國古籍善本書目)』의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에서 확인되는 『제유전해고문진보』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前集十卷後集十卷 元黃堅輯 元刻本
存十卷 前集六至十 後集一至五
諸儒箋解古文眞寶前集十卷後集十卷 元黃堅輯 明刻本
諸儒箋解古文眞寶前集十卷後集十卷 元黃堅輯 明萬曆十一年司禮監刻本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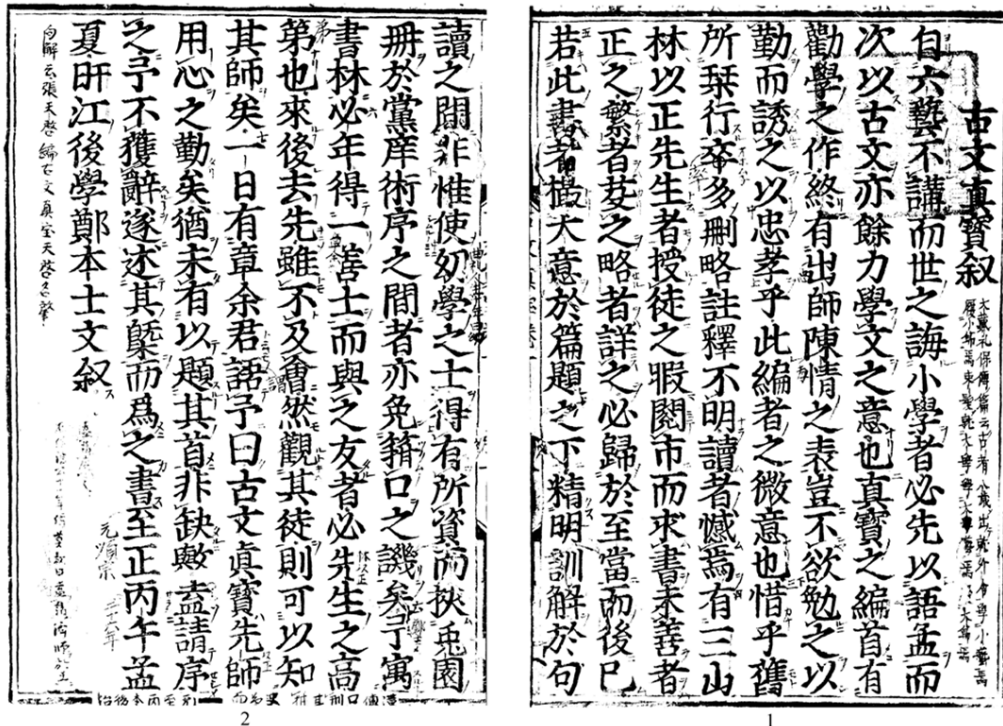
이로 미루어 원대(元代) 판각본의 서명(書名)은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이고, 권책수는 전집 10권, 후집 10권 합 20권이며, 편집자는 황견(黃堅)임을 알 수 있다.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에 대해서는 1366년(元 至正 丙午)에 정본(鄭本)이 쓴 ‘古文眞寶叙’에서¹²⁾ 그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10) 천혜봉(1974), 111-112.;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194.; 이장우, “명나라와 朝鮮의 『古文眞寶』,” 『중국과 중국학』 제1권 1호(2003), 184-185.

11)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書目 集部(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1612.

12) 중국 원대(元代) 간행본은 강찬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강찬수의 연구에서 元 至正 26년(1366)에 쓰인 정본(鄭本)의 서문을 통해 원대(元代)의 『고문진보』 간행사항을 추정하는 것과, 사오싱도서관(紹興圖書館) 소장본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를 원대에 간행된 『고문진보』의 현존 최고판본(最古版本)이며, 유일한 원각(元



<사진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古文眞寶叙(鄭本)
(청구기호:古5-70-나12)

정본(鄭本)의 서문에 따르면, 예전에 간행된 책은 생략된 부분이 많고, 주석이 명료하지 않아 독자들이 유감이었다. 삼산(福建省 福州)사람 임정(林楨)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잡고 번다한 것은 깎아내고 간략한 것은 세밀히 하여 배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막힘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정(林楨)은 기존의 주석을 교주(校注)한 사람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諸儒箋解古文眞寶’에서 ‘諸儒’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에 실린 시문의 저자는 아닐 것이며, ‘諸儒’는 복수(複數)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임정(林楨)이라는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즈미 신(和泉新)¹³⁾이 밝힌 바가 주목된다.

刻) 『고문진보』의 고본(孤本)에 해당한다고 보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고의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힌다(강찬수, “中國刻本 《古文眞寶》에 대한 연구,” 『中國文學研究』 제32집(2006), 73-93). 또한 본고에서는 원대 간행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로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 간행의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古5-70-나12)에 전해지는 정본(鄭本)이 쓴 ‘古文眞寶叙’의 원문을 확인하였다.

13) 중국과 일본의 인명 및 지명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중국의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중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1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으

“명의 葉盛(1420-1471)은 『水東日記』 권9에서, “宋儒가 文章을 批選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呂東萊가 있고 다음에 樓迂齋·周應龍이 있다. 또 그 다음은 謝疊山이 있다.”고 한다. 呂東萊는 呂祖謙(1137-1181)을 말한다. 字는 伯恭이고, 婺州(지금의 浙江省 金華市)의 사람으로 태학박사와 國史院 編修官을 역임했다고 『宋史』 권434에 전한다. 『皇朝文鑑』(『宋文監』이 라고도 함) 『東萊集』 등 실로 많은 편·저서를 남기고 있지만, 여기서는 『古文關鍵』 2 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樓迂齋는 樓昉을 말한다. 樓昉의 자(字)는 陽叔이고, 鄞縣(浙江省) 사람이다. 迂齋는 別號다. 어려서부터 呂祖謙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崇古文訣』 35권을 저술했다. 周應龍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文髓』 아홉 권이 전해지고 있다. 謝疊山은 謝枋得이다. 枋得의 字는 君直이고, 疊山은 그의 호(號)이다. 信州弋陽(지금의 江西省 弋陽縣) 사람으로 寶祐 연간(1253-1258)에 임관 한 후, 德祐 원년(1275) 元兵이 동하(東下)함에 항전했지만 패배하였다. 1279년 남송이 멸망하고 난 뒤로는 元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단식하고 자살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宋史』 권 425). 『文章軌範』 7권의 편자로 유명하다. 『古文關鍵』·『崇古文訣』·『文章軌範』 세 가지는 모두 청대에 편찬된 하나의 큰 총서인 『四庫全書』(1782년 성립)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문을 선택하여 비평·주석한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魁本大字本』의 주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정(林楨)이 덧붙인 것이지만, 前集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後集에는 한결같이 東萊·迂齋·疊山の 설이 인용되어 있다. 『古文眞寶』에 수록된 작품이 『古文關鍵』 등의 서적에도 수록되어 있는 경우, 그 주석이 그대로 『古文眞寶』에 옮겨진 경우가 많다는 것은 본문(本文)의 보주(補注)에 기록해두는 것과 같다.”¹⁴⁾

위에서 보듯이, 섭성(葉盛)은 『수동일기(水東日記)』에서, 문장을 비평하여 선집을 편찬한 송대(宋代)의 유학자로 여조겸(呂祖謙), 누방(樓昉), 주응룡(周應龍), 사방득(謝枋得)을 들었는데, 이즈미 신(和泉新)은 『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후집에 여조겸의 『고문관건(古文關鍵)』·누방의 『송고문결(崇古文訣)』·주응룡의 『문수(文髓)』·사방得的 『문장궤범(文章軌範)』에서 작품을 발췌하여 수록하면서 그 주석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諸儒’는 임정(林楨)과 여조겸, 누방, 주응룡, 사방득 등 남송(南宋)의 학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箋’이란 『모시(毛詩)』에 대한 한(漢)대 학자 정현(鄭玄)의 주석(註釋)을 『정전(鄭箋)』이라 부르는 것과 같이, 경전이나 고서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곳을 해설하여 원작자의 뜻을 밝히거나 자기의 의견을 써 넣은 것을 의미하며¹⁵⁾ ‘解’란 ‘설명하다’, ‘풀이하다’를 의미하므로 ‘諸儒箋解’라 함은 이 남송시대의 학자들이 그들의 문장선집인 『고문관건』·『송고문결』·『문장궤범』 등에서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문장을 풀이하고 주석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諸儒箋解古文眞寶’라고 하면, 모범이 될 만한 ‘古文’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송대 유학자들의 남긴 문장 ‘풀이’까지 함께 모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진보』에는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지만 모두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전집』에는 주로 고시(古詩), 『후집』에는 고문(古文)들이 모여져 있다.¹⁶⁾

며(『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2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 제2항).

14) 이즈미 신(和泉新), 『古文眞寶』(東京(일본): 學習研究社, 1989), 16-18.

15) 國語國文學編纂委員會, 『國語國文學資料辭典·下卷』(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5), 2568.

16) 김학주(2002), 112-114.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와 『상설고문진보대전』의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는 『전집』 10권, 『후집』 10권으로 전·후집 모두 문체(文體)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설고문진보대전』은 『전집』 12권, 『후집』 10권으로 『전집』은 문류(文類)에 따라 문체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후집』은 시대 순으로 작품이 배열되어 있다.¹⁷⁾ 서유구(徐有渠)의 『누판고(鏤板考)』에 “古文眞寶大全 前集十二卷 後集十卷 元陳轅編 進士宋伯貞音釋”¹⁸⁾이라 하여 편찬자가 ‘진력(陳轅)’으로 되어있는 ‘古文眞寶大全’은 前集이 12권, 後集이 10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가 아닌, 1450년(세종 32)에 명대(明代)의 한림시독(翰林侍讀) 예겸(倪謙)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상설고문진보대전』에 해당한다.

『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명(明) 홍치(弘治) 15년(1502) 겨울에 청려재(靑藜齋)가 쓴 『중간고문진보발(重刊古文眞寶跋)』에 “영양(永陽, 江蘇省 徐州府)의 황견(黃堅)이 편찬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황견인 것으로 통설로 되어 있다.¹⁹⁾ 황우직(黃虞稷, 1626-1692)이 편찬한 『千頃堂書目』에서 “黃堅古文眞寶十卷”²⁰⁾이라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우민중(于敏中, 1714-1780)과 팽원서(彭元瑞, 1731-1803) 등이 편찬한 『흙정천록임랑서목(欽定天錄琳琅書目)』에 “諸儒箋解古文眞寶 一函 四冊/ 黃堅輯五卷前明神宗序後明孝宗跋又一跋不著姓氏/ 黃堅不知爲何時人…”²¹⁾라는 기록을 통해서 황견이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자에도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견(黃堅)은 ‘古文’과, 古文에 대한 ‘諸儒’들의 ‘箋解’를 ‘편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 취몐량(瞿冕良) 편저의 『중국고적판각사전(中國古籍版刻辭典)』에 나와 있는 “[黃堅] 南宋后期刻字工人 參加刻過 《記纂淵海》 (半頁 13行, 行 22字)”²²⁾라는 기록인데, 이를 통해 황견은 남송 후기에 각수(刻手)로 활동하면서 『고문진보』를 편집·판각하여 출판했던 것으로 후대 기록에 편집자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문진보』의 간행은 원대(元代)부터 시작되어²³⁾ 명대(明代)에 효종(孝宗)과 신종(神宗)의 칙명으로 간행되어 황제의 명교(名敎)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²⁴⁾ 이후에도 계속 간행되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도 유통되어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편찬체제에 대하여 이즈미 신(和泉新)은

17) 김윤수(1988), 180.; 류탁일(1989), 192.; 이즈미신(和泉新)(1989), 9-17.; 이장우(2003), 185.; 강찬수(2006), 84-90.

18) 徐有渠, 『鏤板考』(京城: 大同出版社, 1941), 158.

19) 김윤수(1988), 181.; 류탁일(1989), 191.; 이즈미 신(和泉新)(1989), 9.; 김학주(2002), 112-114.; 이장우(2003), 181.; 정재철, 『韓·中·日 刊『古文眞寶』의 比較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26호(2006), 215.

20)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676冊 史部434 目錄類(『千頃堂書目』 卷31)』(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737.

21)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675冊 史部433 目錄類(『欽定天錄琳琅書目』 卷10)』(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590.

22) 瞿冕良, 『中國古籍版刻辭典』(濟南: 齊魯書社, 1999), 528.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이 『중국고적판각사전』을 발견, 황견(黃堅)에 관련한 기록을 찾아주신 부산대학교 송정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3) 이즈미 신(和泉新)(1989), 9.

24) 정재철, 『韓·中·日 刊『古文眞寶』의 比較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26호(2006), 238.

“이 작품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가는 매우 흥미 있는 문제이다. 육조 이전의 작품은 대부분이 『문선(文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책에서 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식(曹植)의 『칠보시(七步詩)』 등은 『세설신어(世說新語)』 권3에 여섯 구 보이는데, 『고문진보』에는 4구 밖에 실지 않은 것을 보면, 속본(俗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정이(程頤) 등 송대(宋代) 철학자의 산문을 모아놓은 것은 편찬 당시의 사상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다”²⁵⁾

라 하였는데, 『고문진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고문운동의 전개와 원대 주자학의 공인에 따라 위와 같이 유가문학(儒家文學)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고려말 『고문진보』의 유입

고문진보가 유입된 공민왕(恭愍王)대는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공민왕은 즉위(1351년)부터 당시 책봉국이었던 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려의 내정개혁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었다.²⁶⁾ 1356년(공민왕 5)에는 기철(奇輒) 세력을 포함한 친원 세력을 척결했고,²⁷⁾ 이 일을 계기로 기황후 세력의 공민왕 폐위 의지는 커져만 가게 된다. 거기에 더해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남쪽 복주(福州, 지금의 안동)로 몽진(蒙塵)하기에 이른다.

홍건적의 난이 일단락되고 공민왕이 개경으로 돌아왔으나 숨 돌릴 틈도 없이 덕흥군(德興君) 옹립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원의 기황후는 자신의 일족들이 공민왕에 의해 제거되자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고, 이를 눈치 챈 최유(崔濡)가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옹립할 계획을 세웠다(1363년, 공민왕 12). 최유는 원에 체류하고 있던 대표적인 친원파이고, 최유 일파가 옹립하려 한 덕흥군은 충선왕(忠宣王)과 궁인 사이에 태어난 왕자로 어려서 중이 되었다가 원으로 건너가 있던 상태였는데, 때마침 기황후가 원 황제를 움직여 덕흥군을 고려 국왕으로 정해 주자 최유는 요양성의 군대를 빌려 고려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이다. 1364년(공민왕 13) 1월 1일 최유는 마침내 원 군사 1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포위했다.²⁸⁾

25) 이즈미 신(和泉新)(1989), 15-16.

26)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2017. 6), 199-208.

27) 기황후에게는 기식·기철·기원·기주·기륜 등 여러 명의 형제가 있었다. 이들은 여동생 덕분으로 고려와 원(元)에서 모두 득세하며 친원 세력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친원과 가운데는 기씨 형제 외에도 조일신·노책·권겸이란 자가 있었는데, 조일신은 원(元) 체류 시절에 교류했던 사대부들의 후원에 힘입어 친원파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공민왕이 1차로 조일신을 제거하고 배원정책을 가속하자, 입지가 좁아진 기씨 형제들은 공민왕을 폐위시키고자 했다. 역모를 눈치챈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년)에 대신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다고 속여 기철 일당을 대궐로 불러들였다. 공민왕의 계책을 전혀 모르고 있던 기철과 권겸은 대궐 안에 들어가자마자 철퇴에 맞아 죽었고, 노책은 집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어서 기철의 아들 기유걸·기완자불화, 노책의 아들 노제, 권겸의 아들 권상화가 줄줄이 처형되면서 친원 세력이 일망타진되었다. 『네이버 캐스트-인물한국사-공민왕(필자: 정성희, 발행일: 2010. 05.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374&cid=59015&categoryId=59015>> [접속일 2019.8.8.]

28) 『네이버 캐스트-인물한국사-공민왕(필자: 정성희, 발행일: 2010. 05. 16.)』

공민왕은 최영(崔瑩)을 도순위사(都巡慰使)에 임명하여 관군을 진두지휘하게 하고, 이성계(李成桂)에게 정예 기마병 1천명을 파견하여 최영을 돕게 했다. 이에 최유는 결국 기세가 꺾여 원으로 달아났다. 고려가 원군을 격퇴하자, 원은 이를 인정하여 공민왕을 복위시켜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고려가 1259년(고종 46) 몽골의 무력에 굴복한 지 105년 만에, 무력을 동원한 원의 간섭에 고려도 무력으로 맞서 격퇴한 것으로²⁹⁾ 이후 공민왕은 원 황실과의 관계를 유지,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하면서도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³⁰⁾를 비롯한 권력자, 중원의 군웅(群雄) 등 다양한 세력들과의 교류 확대를 시도하였다.

14세기 중엽 중국 강남지역에는 장사성(張士誠), 방국진(方國珍), 주원장(朱元璋) 등 한인(漢人) 군웅이 대두하여 권력을 다투고 원(元)은 이들 세력에 저항하면서 북쪽으로 밀려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고려는 기본적으로 원(元)에 대하여 사대(事大)를 유지하면서도, 양자강(揚子江) 일대의 한인 군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정확한 정세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³¹⁾

군웅 중에는 원에 반항하는 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을 보위하려는 민병집단이 일종의 군벌(軍閥)형태로 주로 북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원 관군이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가운데, 찰한첩목아(察罕帖木兒)와 발라첩목아(孛羅帖木兒)가 이들 군벌 중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궁중의 권력투쟁에도 개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서로 충돌하였다.³²⁾ 한편 확곽첩목아는 1361년 8월 중서성 동평(東平)의 전풍(田豐) 세력을 항복시키고 동평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고, 이후 그는 병력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다.³³⁾ 발라첩목아는 전횡을 일삼다가 원 순제에 의해 곧 제거되고, 이번에는 하남(河南)에 웅거하고 있던 확곽첩목아가 자기에게 피신해 있던 황태자를 옹위하여 대도(大都, 지금의 베이징)로 진군하여 들어갔다. 원 순제는 확곽첩목아를 좌승상으로 삼고 전국의 군사통수권을 주었으며, 확곽첩목아가 대도를 떠나 원래의 근거지인 하남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하남왕(河南王)’으로 봉해주었다. 이 해가 1365년(공민왕 14)으로 이로부터 3년간 확곽첩목아가 원 군정(軍政)의 대권을 휘두르는 권력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³⁴⁾ 이 해에 공민왕은 확곽첩목아에게 사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때 사신으로 간 사람이 전녹생이다.

전녹생³⁵⁾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³⁶⁾ 1318년(충숙왕 5) 전라도 담양부 북쪽에 있는 경대산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9374&cid=59015&categoryId=59015>> [접속일 2019.8.8.]

29) 박원호, “고려말 조선초 대명외교의 우여곡절,” 『한국사 시민강좌』 제36집(2005. 2), 69.

30) 원래 한인(漢人)으로 중국이름이 왕보보(王保保)였는데, 외삼촌 찰한첩목아(察罕帖木兒)의 양자가 되어 원 순제로부터 몽골식 이름을 하사받고, 몽골인보다 더 몽골인처럼 행동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박원호(2005), 70-71).

31) 엄경훈, “高麗後期 對中國使臣 送詩에 表現된 外交認識의 變化와 그 意味,” 『동양한문학회연구』 제27집(2008), 288.

32) 박원호(2005), 70.

33) 이강한, “고려 공민왕대 정부 주도 교역의 여건 및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2011. 12), 226.

34) 박원호(2005), 71.

35) 전녹생의 자는 맹경(孟耕), 호는 야은(野隱),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36) 전녹생의 생애를 파악하는 데에는 『야은일고』가 참고가 된다. 『야은일고』는 후손 전만영(田萬英)이 『고려사』·『동국통감』·『동국사략』 등 7종의 역사서와 『익제난고』·『목은집』 등 12종의 문집 등의 기록에서 전녹생의

원율천이 흐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³⁷⁾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기개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이세현, 이색, 이집, 백문보, 정몽주, 권근 등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두루 교류하고 이들로부터 존경받은 인물로 평가된다.³⁸⁾

1331년(충혜왕 1)에 문과에 급제한 뒤³⁹⁾ 1361년(공민왕 10) 44세 때 5월에 전라도 안렴사(按廉使)로 부임했는데,⁴⁰⁾ 그 해 11월에 발생한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은 개경에서 복주(福州, 지금의 안동)로 피난가게 되었다. 당시 대가(大駕)가 출발할 때, 절박한 피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료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였으므로 공민왕을 호종한 인물들은 많지 않았는데⁴¹⁾ 당시 전녹생은 국왕을 호종하는 일에 동참하였다.⁴²⁾ 이후 1363년(공민왕 12) 공민왕을 호종했던 공로로 이등공신에 책록되었다.⁴³⁾ 그리고 1365년(공민왕 14) 원에 파견되어, 황태자, 학곽첨목아, 심왕(瀋王) 등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⁴⁴⁾

전녹생은 다음해인 1366년(공민왕 15) 3월에도 학곽첨목아를 방문(聘問)하기 위해 파견되었다.⁴⁵⁾ 그런데 전녹생은 연경(燕京, 현재의 베이징)에는 이르렀으나 하남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6월에 돌아왔는데,⁴⁶⁾ 그 이유는 원(元)의 황태자 아유시리다라(愛猷識理答臘)가 하남과 통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전녹생에게 명하여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다.⁴⁷⁾ 서장관(書狀官)으로 함께 갔던 김제안(金齊顔)만 하남에 도착하여 학곽첨목아를 만나고⁴⁸⁾ 그 해 11월에 돌아왔다.⁴⁹⁾ 시기상 전녹생이 연경(燕

기록들을 정리하였고, 일고가 성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영조 14년(1738)에 간행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역본을 출간하였는데, 본고에서 전녹생의 주요 관직은 이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전녹생 지음, 박찬수 옮김, 『야은일고』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20).

37) 김동욱, 『고려 사대부 작가론』 (서울: 박이정, 2004), 231.

38) 하정승, “야은 전녹생의 시문에 나타난 고려 후기 사대부의 면모와 정신,” 『포은학연구』 제20집(2017), 187.

39) 마산시사편찬위원회, 『마산시사』 (마산: 마산시, 1997), 1469.

40) 『高麗史』 卷112, 列傳 25, 田祿生.

41) 김인호, “고려 후기 전녹생의 삶과 절의,” 『포은학연구』 제16집(2015), 60.

42) 『高麗史』 卷39, 恭愍王 10年(1361) 11月(丙寅).

43) 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469.

44) 『高麗史』 世家 卷41, 恭愍王 14年(1365) 4月(辛酉).

“遣監察大夫田祿生, 宦者府院君方節如元, 進禮物于皇太子, 又贈廓擴帖木兒及瀋王等.”

『壁隱逸稿』 卷6 「附錄」, 『壁隱先生歷官略』.

“…四月辛丑, 以監察大夫如元, 進禮物于皇太子, 又贈廓擴帖木兒及瀋王等.”

45) 『高麗史』 世家 卷41, 恭愍王 15年(1366) 3月(庚子).

“遣密直提學田祿生, 聘于天下愬兵官河南王廓擴帖木兒.”

46) 『高麗史』 世家 卷41, 恭愍王 15年(1366) 6月(壬戌).

“田祿生不達河南而還, 書狀官 金齊顔, 欲達使命, 留燕京.”

『壁隱逸稿』 卷6 「附錄」, 『壁隱先生歷官略』.

“…十五年丙午三月庚子, 又爲密直提學, 聘于河南王廓擴帖木兒. 六月壬戌 先生還自燕京.”

47)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15年(1366) 6月.

“六月. 田祿生不達河南而還. 祿生至燕京, 皇太子不欲我通信河南, 命祿生東還. 書狀官軍簿佐郎金齊顔謂祿生曰, “公大臣不可留也. 予且留, 必達使命于河南.” 遂留燕京. 王以齊顔爲携貳, 徵還所賜治裝錢穀.”

48) 『高麗史』 卷104. 列傳 17. 金齊顔.

49) 『高麗史』 世家 卷41, 恭愍王 15年(1366) 11月(辛丑).

京)에 머물렀을 때가 4월 말~5월 초로 보이는데, 이때는 앞서 살펴본 원대(元代)에 간행된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와 비교하면 이 책의 서문이 쓰여진 시기인 ‘지정 병오 맹하(至正丙午年孟夏)’(1366년 음력 4월 경)과 시기적으로 맞으므로, 원의 황태자가 전녹생에게 돌아가라고 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에서 전녹생에게 선물로 책을 하사했을 리는 없고,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가 갓 출판되어 유통되던 때 연경(燕京)에서 전녹생이 개인적으로 구해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서명이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전녹생이 이듬해인 1367년(공민왕 16) 7월에 경상도 도순문사로 함포에 부임하여 이 때 구해온 『고문진보』를 간행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사료 및 문헌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려 말 전녹생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고문진보』는 공민왕대의 복잡한 대내외적 정세 속에서 원 황실과의 관계 이외에 확곽첩목아를 비롯한 원의 권력자, 중원의 한족 군웅 등 다양한 세력들과의 교류 확대를 시도하던 시기에 공민왕의 신임을 얻은 관료인 전녹생이 외교사절로 하남왕을 만나러 갔다가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에서 구해와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4. 고려말 · 조선초의 간행

고려말 · 조선초에 간행된 『고문진보』는 크게 1367년(공민왕 16) 전녹생이 함포(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간행한 것, 1420년(세종 2년)에 전녹생의 손자인 전예(田藝)의 소장본을 보고 옥천에서 새로 간행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⁰⁾ 1367년(공민왕 16) 함포에서의 간행과 1420년(세종 2년) 옥천에서의 간행은 다음을 같이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4.1 고려말 함포에서의 『고문진보』 간행

4.1.1 문헌기록 분석

고려시대에 간행된 『고문진보』에 대한 기록으로는 『고선책보(古鮮冊譜)』에 “古文眞寶/麗刻/古文眞寶後集 麗本 一冊 全(京都御數寄屋文庫書目)”라는 기록이 있으나,⁵¹⁾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 실물이 없고⁵²⁾ 연구자 또한 현재까지 실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명(書名)이 ‘선본

“河南王遣中書檢校郭永錫，偕金齊顏來，報聘。”

50) 천혜봉(1974), 111-112.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194. ; 이장우, “『명나라와 朝鮮의 『古文眞寶』,” 『중국과 중국학』 제1권 1호(2003), 184-185.

51) 마에마 료오사쿠(前問恭作), 『古鮮冊譜』 第1冊 (서울: 신학문사, 1994), 477.

52) 천혜봉(1974), 109. ; 정재철(2006), 228-229. ; 유창준, 『한국 인쇄 문화사』 (서울: ㈜지학사, 2015), 57.

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인지,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魁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알 수 없다. 따라서 고려말 합포에서 간행된 책에 대해서는 명칭을 잠정적으로 『고문진보』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간행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田祿生, 『堉隱逸稿』 권6 「附錄」, 『堉隱先生歷官略』

“[공민왕] 16년 정미(1367) 7월 임진일에 경상도 도순문사(慶尙道 都巡問使)가 되어 합포(合浦)에 나가 진무(鎭撫)하였다. 일찍이 《고문진보》를 구입해 와서 처음으로 산삭하고 증보(增補)하여 간행해서 세상에 뵈었다.”⁵³⁾

② 姜淮仲,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

“이 책에 실린 시문은 선유(先儒)들이 고아(古雅)한 것을 정선(精選)하여 뽑아낸 것으로, 배우는 이들이 모범으로 삼을 것들이다. 전 왕조인 고려 때에 야은 진녹생이 합포(合浦)에 나가 진수(鎭守)할 때 국방의 여가를 틈타 공장(工匠)을 모아 간행하니, 이후부터 모두들 이 책이 배우는 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판본은 오랜 세월이 흘러 판각이 마모되어 희미해졌고 또 주해(註解)가 없어, 보는 자들이 흠으로 여겼다. 기해년(1419, 세종1) 내가 충청도 관찰사가 된 이듬해, 공주(公州) 교수(教授) 전예(田藝)가 이 책을 보여 주었는데, 보충한 주석이 분명하여 마음에 꼭 들었다. 인하여 옥천 군수 이호(李護)에게 부탁하여 중간(重刊)을 감독하게 했더니 몇 달이 안 되어 완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아, 어찌 이것이 사문(斯文)의 한 행운이 아닌가. 이제 두 본을 대교(對校)해 본즉, 구본에는 자못 야은 선생이 산삭(刪削)하거나 증보(增補)한 것이 있어 이번 판본과는 중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여기에 그간의 사정을 밝히며 아울러 후학들에게 알린다. 영락(永樂) 용집(龍集) 경자년(1420, 세종2) 1월 하순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충청도 도관찰출척사(忠淸道都觀察黜陟使) 진양(晉陽) 강희중은 삼가 기록한다.”⁵⁴⁾

③ 金宗直, 『詳說古文眞寶大全跋』

“...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야은(堉隱) 전 선생(田先生)이 가장 먼저 합포(合浦)에서 간행하였고, 그 뒤에 관성(管城)에서 이어 간행했는데, 두 본이 서로 증감(增減)이 있다. 경태(景泰) 초년에 한림시독(翰林侍讀) 예(倪) 선생이 지금 통행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 주었다. 거기에 수록된 시와 문장은 구본에 비해 여러 배 되므로 이름을 《대전(大全)》이라 하였다. ... 성화(成化) 8년 임진(1472, 성종3) 4월 상한(上澣)에 봉정대부(奉正大夫) 행함양군수 진주진병마동첨절제사(行咸陽郡守 晉州鎭兵馬同僉節制使) 김종직(金宗直)이 삼가 발문을 쓴다.”⁵⁵⁾

53) 진녹생, 『堉隱逸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권6 附錄. 『堉隱先生歷官略』.

“六年丁未七月壬辰, 爲慶尙道都巡問使, 出鎭合浦。嘗購來《古文眞寶》, 始刪增, 刊行于世。”

54) 진녹생, 『堉隱逸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권4 附錄.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姜淮仲).

“此編所載詩文, 先儒精選古雅, 表而出之, 承學之士所當矜式也。前朝時, 堉隱田先生祿生出鎭合浦, 董戎之暇, 募工刊行。由是, 皆知是編有益於學者。然其本歲久板昏, 且無註解, 觀者病焉。歲在己亥, 予丞乏觀察忠淸, 越明年, 公州教授田藝出示此本, 有補註明釋, 瞭然於心目。因囑沃川守李護, 監督重刊, 未數月而告畢。於戲, 豈非斯文之一幸哉! 今以二本讎校, 則舊本頗有堉隱先生所刪所增, 故與今本中間微有小異耳。愚於此論辨, 并諗諸後學云。時永樂龍集庚子孟冬下澣, 嘉靖大夫 忠淸道都觀察黜陟使晉陽姜淮仲謹誌。”

55) 진녹생, 『堉隱逸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권4 附錄. 『詳說古文眞寶大全跋』(金宗直).

“... 自流入東土。堉隱田先生首刊于合浦, 厥後繼刊于管城, 二本互有增減。景泰初, 翰林侍讀倪先生將今本以遺我東方, 其詩若文, 視舊倍蓰, 號爲大全。... 成化八年壬辰四月上澣, 奉正大夫行咸陽郡守 晉州鎭兵馬同僉節制

위를 종합해서 보면, 전록생에 의해서 『고문진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합포(合浦)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충정왕(忠定王, 재위: 1348~1351)대부터 왜구⁵⁶⁾가 침입하기 시작한 이래로 서남해 연안지역은 물론 수도 개경까지 위협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1223년(고종 10)부터 1392년(공양왕 4)까지 고려 말 왜구의 침입회수는 모두 529회에 달하였고, 공민왕과 우왕(禡王) 때 왜구의 침입을 가장 많이 당했다.⁵⁷⁾ 그러나 당시 고려는 내정의 문란, 홍건적의 침입, 원명교체에 따라 대외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어 왜구의 침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⁵⁸⁾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피해⁵⁹⁾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합포를 포함한 경상도 해안지역이었다.⁶⁰⁾ 1350년(충정왕 2) 6월에 왜구는 2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합포에 침입하여 병영(兵營)을 불살랐으며,⁶¹⁾ 1352년(공민왕 1) 9월에는 왜구가 50여 척의 배로 합포를 공격하였다.⁶²⁾ 왜구의 반복된 침입에 합포 지역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설치된 국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³⁾ 원(元)이 고려를 거쳐서 일본정벌을 벌일 때만 하여도 합포가 군사기지로 거점지였고,⁶⁴⁾ 이후에도 외형적으로는 만호부의 설치와 방호사의 파견 등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고려사』 1356년(공민왕 5)의 기록에 따르면 합포만호부가 군졸을 없이 만호가 금부(金符)를 차고 선명(宣命)을 과시하고 백성을 괴롭히기만 할 뿐⁶⁵⁾ 그 기능이 유명

使金宗直謹跋.”

56) 왜구란 대마도·구주지방의 변민(邊民)으로 부족한 생활필수품인 미곡(米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3-16세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약탈을 일삼던 해적이었다. 왜구의 침입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나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고려 말의 약 40년간이었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5).

57) 김광철, “고려시대 합포 지역사”, 『한국중세사연구』 제17호(2004. 10), 22.

58) 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5-126.

59) 왜구의 침입목적은 정벌(征伐)이 아니라 순전히 재화의 약탈에 있었던 것으로, 이들이 노략질해 가는 것은 주로 양곡이었으므로 곡식을 저장해 둔 官倉과 해상의 조운선을 습격하여 양곡을 탈취하였고, 고려 백성들을 붙잡아 가거나 인명을 살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6).

60) 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6-127.

61) 『高麗史』 卷37, 世家 17, 忠定王 2年(1350) 6月(丁酉).

“倭船二十艘寇合浦, 焚其營及固城·會原諸郡.”

62) 『高麗史』 卷37, 世家 17, 恭愍王 1年(1352) 9月(壬申).

“倭船五十餘艘, 寇合浦.”

63) 김광철(2004), 22.

64) 그 근거로는 정동행성(征東行省)과 몽고정(蒙古井)이 있다. 원(元) 세조(世祖)는 여원연합군의 2차 동정에 필요한 전함의 신조와 군량의 확보를 고려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1276년(충렬왕 3)에는 탐라(耽羅)에 목마장을, 1279년(충렬왕 6)에는 합포에 동정의 전담기구를 개설하니 이것이 바로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이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4-125). 마산시 자산동 118번지에 위치한 몽고정은 1281년(충렬왕 7) 원(元)이 고려와 협세하여 일본을 정벌하고자 이곳 합포에 정동행성을 설치할 때 군마의 음료수를 공급한 우물이라 전하는데, 몽고정이란 이름은 1932년 일본인이 붙였다고 전하며, 원래는 고려정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 124-125, 1270).

65) 『高麗史』 卷39, 世家 39, 恭愍王 5年(1356) 10月 12日(戊午).

“... 小邦有監察司·典法司, 掌刑聽訟, 糾正非理, 而省官聽人妄訴, 拘取諸司所斷文券, 以是爲非. 莫敢誰何, 人疾之如狼虎. 況今省官, 有與逆賊謀者. 願自今, 其左右司官, 令臣保舉, 勿蹈前弊, 其理問所等官司, 一切革去.”

무실해져 있는 상태였다.⁶⁶⁾ 이는 원(元)의 고려 군사력 무력화 정책에 의한 결과이다. 전녹생이 경상도 도순문사로 함포에 출진하게 된 1367년(공민왕 16) 7월은⁶⁷⁾ 왜구의 침입이 국가적으로 큰 골칫거리였던 시기로, 왜구의 격퇴는 도순문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할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고문진보』가 간행되었던 것인데, 간행 당시인 고려 말 지방에서의 책 출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불서(佛書)를 제외한 관판본의 경우에는 고려 초기부터 중앙의 秘書省(監) 또는 典校署(寺)가 출판 기획·저본(底本)의 교감·編次하는 일을 등을 맡고, 지방관서로 하여금 관각하여 진상하도록 하여, 秘閣·書籍鋪·書籍店이 그 책판을 관리하면서 인쇄·보급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었다.⁶⁸⁾ 고려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1011년(현종 2)경에 착수하여 1087년(선종 4)에 마무리 된 초조대장경의 주조(鑄造)를 관장, 제작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대장경 이외의 관판본의 관각은 지방관아에서 담당하도록 한 관례가 고려 말까지 지속되어⁶⁹⁾ 불경의 간행은 중앙에서 거국적으로 진행된데 반하여 유교 서적의 간행은 대개 지방에서 간행된 것이다.⁷⁰⁾

이와 같은 인쇄정책은 중앙관서와 전국 주요 군현의 지방관서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전되고 있는 관판본을 보더라도, 1045년(정종 11)에 비서성이 직접 『예기정의(禮記正義)』와 『모시정의(毛詩正義)』를 간행⁷¹⁾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관서에 의해 개판된 지방관판(地方官板)이다.⁷²⁾

고려시대에 중앙과 사찰을 제외하고, 서적이 간행된 지방은 오늘날의 경주(慶州)·충주(忠州)·해주(海州)·성주(星州)·남원(南原)·평양(平壤)·진주(晉州)·안동(安東) 등으로⁷³⁾ 관판 인쇄 정책이 지방 관아의 관각술을 발달시켜 중앙의 명령(또는 권장)이 없더라도, 필요한 책을 자체적으로

世皇東征日本時所置，萬戶・中軍・右軍左軍耳，其後，增置巡軍・合浦・全羅・耽羅・西京等萬戶府，並無所領軍徒，佩金符，以夸宣命，召誘平民，妄稱戶計，勒令州縣，不敢差發，深爲未便。如蒙欽依世祖皇帝舊制，除三萬戶鎮守日本外，其餘增置五萬戶府，及都鎮撫司，乞皆革罷。……”

66) 김광철(2004), 23.

67) 『高麗史』世家 卷41, 恭愍王 16年(1367) 7月(壬辰).

“壬辰 以田祿生爲慶尙道都巡問使，金漢貴爲全羅道都巡問使，池龍壽爲西北面都巡問使，李成林爲東北面都巡問使。”

68) 천혜봉, 「高麗 印刷術의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1980), 153-156.; 천혜봉, 「한국 서지학」(서울: 민음사, 2010), 187-193.; 박문열, “忠北 古印刷文化의 概觀,” 『博物館報』 11(1998), 14.; 최연주, “12·13세기 전적 간행의 유형과 그 성격,” 『考古歷史學志』 17·18合輯(2002), 22-24.; 유창준(2015), 55.

다음과 같이 『高麗史』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

『高麗史』卷20 世家. 明宗 22年(1192) 4月(壬子).

“夏四月 壬子 命吏部尙書鄭國儉，判秘書省事崔誥，集書筵諸儒於寶文閣，讎校增續資治通鑑。分送州縣，雕印以進，分賜侍從儒臣。”

69) 천혜봉(1980), 153-156.

70) 김충열, 「한국유학사 1」(서울: 예문서원, 1998), 213.

71) 『高麗史』卷6 世家, 靖宗 11年(1045) 4月(己酉).

“秘書省進新刊禮記正義七十本，毛詩正義四十本，命藏一本於御書閣，餘賜文臣。”

72) 천혜봉(1980), 153.; 천혜봉(2010), 188.

73) 박문열, “고려시대 충북의 인쇄출판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淸大學術論集』 第1輯(2003), 246-248.

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방 문호들로 하여금 사가판(私家板)까지 출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⁷⁴⁾

개인이 자비로 간인(刊印)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펴낸 책을 사가판(私家板) 또는 사가판본(私家板本)이라 일컫는데, 고려시대에는 불서의 사가판이 많이 간행되었고, 시문집의 사가판은 저자의 자손 또는 후손, 문하생 등이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친지나 문인들이 지방의 사또(使道) 또는 수령으로 부임하였을 때 그 지방의 각공(刻工)들에게 약간의 행하(行下) 또는 실비를 지불하고 간행하였다.⁷⁵⁾ 지금까지 알려진 공민왕 대의 사가판 시문집으로는, 1363년(공민왕 12)에 개판한 『익재난고(益齋亂藁)』가 있고, 1370년(공민왕 19)에 간행된 『근사록(近思錄)』과 『금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이 있다.⁷⁶⁾

강희중의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에서 “공장(工匠)을 모아서 간행”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고려에는 전기부터 주요 군현(郡縣)과 사원(寺院)에서 출판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⁷⁷⁾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서적의 간행은 국가적 시스템과 민간의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므로, 국가 주도적인 절차를 통한 전적의 간행은 중앙 및 지방에서 곧 바로 착수되었고, 지방에서 간행된 책은 중앙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역사서와 의학서를 비롯한 각종 문집이 왕명에 의하여 지방에서 관각되어졌는데, 『고려사』에 1192년(명종 22) 『증속자치통감(增續資治通鑑)』을 교정하여 각 군현(州縣)에서 관각하여 진상하도록 한 기록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⁷⁸⁾ 이규보(李奎報)가 사록검장서기로 전주에 있을 때(1199-1200)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노식(盧軾)이 『십이국사(十二國史)』를 즐겨 읽어 완산(完山)에 벼슬하고 있을 때 공인(工人)을 동원하여 인쇄하여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던 사례를⁷⁹⁾ 보아도 지방사회에서는 책의 간행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집권층 및 개인에 의해 간행될 때에도 대개 주요 지방 및 사원을 중심으로 ‘공인(工人)’을 모아서 간행하면서 그 비용을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지배세력들의 지원 속에서 활동하다가 왕명에 의해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될 때에도 동원되어 활동하였다.⁸⁰⁾

전녹생이 왜구의 침입으로 진무(鎭撫)하는 중에 『고문진보』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74) 천혜봉(2010), 190. ; 유창준(2015), 56-59.

75) 천혜봉(2010), 243.

76) 천혜봉(2010), 247-248.

77) 최연주(2002), 36.

78) 『高麗史』卷20 世家, 明宗 22年(1192) 4月(任子).

“命吏部尙書鄭國儉, 判秘書省事崔誥, 集書筵諸儒於寶文閣, 讎校增續資治通鑑. 分送州縣, 雕印以進, 分賜侍從儒臣.”

79)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21, 十二國史重彫後序.

“十二國史. 諸史之樞要也. 漁獵不煩. 而足以鑑諸國之興亡善惡. 故今按部盧公軾. 雖居衛霍之班. 雅好孔姬之術. 於書傳中. 偏嗜是書. 弭節完山. 募工彫印. 以施學者. 是亦好善君子利人之一端也. 某月日. 全州牧掌書記某序.”

80) 최연주(2002), 35-38.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발달해 온 고려 말 지방인쇄술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공인의 존재와 활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형으로는 관찬본이 아닌 『근사록(近思錄)』, 『금암선생시집(及菴先生詩集)』과 같이, 전녹생의 명령으로 지방의 공인들을 동원하여 출판한 사가 판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고문진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합포는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저구릉지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예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을 얻기 쉽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선상지(扇狀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퇴적층으로 된 완만한 경사의 지형면은 농경지, 취락지, 경지, 묘지 등은 인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였다.⁸¹⁾

이러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내륙 깊숙이 들어 온 마산만은 항구로서의 입지조건이 좋아,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여원 연합군의 일본 정벌 기지가 되어 군사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석두창이라는 조창(漕倉)이 이곳에 설치됨으로써 낙동강 하구 지역의 생산물을 모아 수도인 개경으로 발송하는 수취의 거점지역이 되어⁸²⁾ 교통망이 확보되고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⁸³⁾

한편 지금의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합포(合浦)’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된 것은 757년(경덕왕 16)의 행정개편 및 한화정책(漢化政策)의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전까지 칭했던 ‘골포현(骨浦縣)’이 ‘합포현(閤浦縣)’으로 개칭되면서 부터이다.⁸⁴⁾ 『고려사』⁸⁵⁾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⁸⁶⁾의 기록에 따르면, 별칭으로 ‘환주(還珠)’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후한서(後漢書)』의 『맹상전(孟嘗傳)』⁸⁷⁾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때 태수로 부임했던 맹상(孟嘗)의 활동이 드러나면서부터

81) 남재우, “骨浦國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경계』 54(2005), 143-145.

82) 『高麗史』卷79, 志 卷第 33, 食貨 2. 漕運.

“國初, 南道水郡, 置十二倉, 忠州曰德興, 原州曰興元, 牙州曰河陽, 富城曰永豐, 保安曰安興, 臨陂曰鎮城, 羅州曰海陵, 靈光曰芙蓉, 靈岩曰長興, 昇州曰海龍, 泗州曰通陽, 合浦曰石頭. 又於西海道長淵縣, 置安瀾倉, 倉置判官. 州郡租稅, 各以附近輸諸倉, 翌年二月漕運, 近地限四月, 遠地限五月, 畢輸京倉. 限內發舡, 因風失利, 梢工三人以上, 水手・雜人五人以上, 并米穀漂沒者, 勿徵, 限外發舡, 梢工・水手三分之一, 敗沒者, 其官色典・梢工・水手等, 平均徵納.”

83) 김광철(2004), 16-17.

84) 『三國史記』卷34, 雜志, 地理, 義安君.

“義安郡, 本屈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漆隄縣, 本漆吐縣, 景德王改名. 令漆園縣. 合浦縣, 本骨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熊神縣, 本熊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85) 『高麗史』卷57, 志, 地理, 慶尙道 金州 閤浦縣.

“合浦縣 本新羅骨浦縣, 景德王, 改今名, 爲義安郡領縣.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忠烈王八年, 更名會原, 陸爲縣令,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別號還珠. 有月影臺.”

86)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慶尙道 昌原都護府.

“郡名. 屈自 義安 義昌 檜山 骨浦 合浦 會原 還珠”

87) 『後漢書』卷76, 循吏列傳 第66, 孟嘗傳(范曄 著, 李賢 註, 陳起煥 譯註, 『原文 譯註 後漢書(九)』(서울: 명문당, 2019), 207-212).

“... 맹상은 뒷날 책서에 의거 효렴으로 관직을 받았고, 또 (근무 중) 茂才(秀才)로 천거되어 (下邳國) 徐縣

‘환주(還珠)’가 선정을 펼친 수령의 상징이 되어 중국사에서 합포는 의미 있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선조들도 훌륭한 수령 상을 떠올리거나 수령의 업적을 칭송할 때에는 종종 ‘환주(還珠)’와 ‘합포(合浦)’를 이야기했다.⁸⁸⁾

최치원(崔致遠)은 『사주 우도 상서에게 도지휘사를 맡기며 청한 글(請泗州于濤尙書充都指揮使)』에서⁸⁹⁾ 선정(善政)의 상징으로 ‘합포’를 언급하였고, 이인로(李仁老)도 ‘최태위(崔太尉)의 집에 소장된 초서 족자에 대하여(崔太尉家藏草書簇子)’라는 칠언절구 시에서 이규보가 살아가던 당시를 진주가 합포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⁹⁰⁾ 이에 대하여 김광철은 신라시대부터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교 경전과 역사서의 학습으로 ‘환주’가 상징하는 바도 지식인들의 인식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경덕왕대 ‘골포’에서 ‘합포’로의 지명 개칭은 지방관을 비롯한 관료의 선정(善政)과 민생의 안정을 바라는 국가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⁹¹⁾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 『고문진보』 출판이 당시 지식인 사회에의 보급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 활동이라면,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바탕으로 경세가와 목민관으로서 자질을 발휘해 온 전녹생이, 도순문사(都巡問使)라는 관직을 넘어 합포에서 펼친 ‘선정(善政)’의 일환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석두창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교통망의 발달은 출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령이 되었다. 州郡에서는 그 능력을 표창했고, 맹상은 合浦太守로 승진했다. 합포군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고 바다에서 眞珠 같은 珍寶가 산출되었는데, 交趾郡과 접경하여 늘 상인들이 오가며 곡식을 사들였다. 맹상에 앞서 근무했던 합포태수는 모두가 탐욕과 부정이 많아 백성을 강요하여 진주 등을 수집했는데, 옥구가 끝이 없어 진주조개가 점차 교지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합포군에는 상인들도 오지 않았고, 백성은 물자가 없어 貧者들은 길에서 아사하였다. 맹상은 부임한 뒤로 이전의 폐단을 모두 혁파하면서 백성의 길고를 구원하고 이익을 지켜주자 사라졌던 진주조개가 다시 나타났으며, 백성들은 모두 본래의 일을 하면서 물건이 유통되자 백성은 맹상을 神明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 嘗後策孝廉, 舉茂才, 拜徐令. 州郡表其能, 遷合浦太守. 郡不產穀實, 而海出珠寶, 與交趾比境, 常通商販, 貿糴糧食. 先時宰守並多貪穢, 詭人採求, 不知紀極, 珠遂漸徙於交趾郡界. 於是行旅不至, 人物無資, 貧者餓死於道. 嘗到官, 革易前敝, 求民病利. 曾未踰歲, 去珠復還, 百姓皆反其業, 商貨流通, 稱爲神明 …) ”

88) 김광철(2004), 7-9.

89) 『桂苑筆耕集』卷13 舉牒, 請泗州于濤尙書充都指揮使.

“牒尙書. 洞究儒經. 旁探武緯. 指清道於萬里. 牧遠群於三年. 旗看隼飛. 輶待鹿挾. 慰疲甿以仁政. 捍寇盜以智謀. 克歸合浦之珍. 曾散曲堤之衆. 今者徐戎遺燼. 敢恣侵凌. 楚卒精鋒. 佇期掃蕩. 終免致包胥之哭. 況非奪晉鄙之軍. 但以鷹犬呈功. 熊羆就列. 須俟指揮之命. 仍申搏噬之能. 實託威權. 遠希統攝. 俾瞻馬首. 皆知進退之宜. 永滅梟聲. 用審否臧之律. 事須充都指揮使. 其應援諸郡及寧淮・盱眙・淮陰等三鎮將士. 悉受指揮.”

90) 『東文選』卷20, 七言絕句, 崔太尉家藏草書簇子.

“顛張脫帽落雲烟, 妙筆通靈迸作仙, 不見明珠還舊浦, 空留畫餅出饑涎.”

91) 김광철은 중국의 지명을 차용할 경우, 군현 명칭을 통해 집권체제를 확립하고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김광철(2004), 11-12).

4.2 조선초 옥천에서의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간행

4.2.1 문헌기록 분석

옥천에서의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간행사황을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姜淮仲,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

“이 책에 실린 시문은 선유(先儒)들이 고아(古雅)한 것을 정선(精選)하여 뽑아낸 것으로, 배우는 이들이 모범으로 삼을 것들이다. 전 왕조인 고려 때에 야은 진녹생이 함포(合浦)에 나가 진수(鎭守)할 때 국방의 여가를 틈타 공장(工匠)을 모아 간행하니, 이후부터 모두들 이 책이 배우는 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판본은 오랜 세월이 흘러 판각이 마모되어 희미해졌고 또 주해(註解)가 없어, 보는 자들이 흠으로 여겼다. 기해년(1419, 세종1) 내가 충청도 관찰사가 된 이듬해, 공주(公州) 교수(教授) 전예(田藝)가 이 책을 보여 주었는데, 보충한 주석이 분명하여 마음에 쏙 들었다. 인하여 옥천 군수 이호(李護)에게 부탁하여 중간(重刊)을 감독하게 했더니 몇 달이 안 되어 완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아, 어찌 이것이 사문(斯文)의 한 행운이 아닌가. 이제 두 본을 대교(對校)해 본즉, 구본에는 자못 야은 선생이 산삭(刪削)하거나 증보(增補)한 것이 있어 이번 판본과는 중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여기에 그간의 사정을 밝히며 아울러 후학들에게 알린다.

영락(永樂) 용집(龍集) 경자년(1420, 세종2) 1월 하순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충청도 도관찰출척사(忠淸道都觀察黜陟使) 진양(晉陽) 강희중은 삼가 기록한다.”⁹²⁾

② 金宗直, 「詳說古文眞寶大全跋」

“시(詩)는 《삼백편》으로 원조(元祖)를 삼고, 문(文)은 전한(前漢)·후한의 것으로 으뜸을 삼는데, 성률(聲律)과 우려(偶儷)의 문체(文體)가 일어남으로부터 문장에 병이 들었다. 양(梁)나라 소통(蕭統) 이후 이러한 부류의 책을 편찬한 이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부섬(富贍)을 자랑하거나 다투는 것들로, <함지(咸池)>와 <초사(楚辭)>, 너세(壘洗)와 강호(康瓠), 수주(隋珠)와 어목(魚目)을 다 함께 주워 모아 그 번거로움을 싫어하지 않았으니 문장의 병통이야 논할 겨를도 없다.

그런데 오직 《고문진보》 한 책만은 그렇지 않아, 그 체록 기준도 자못 진서산(眞西山)이 남긴 《문장정종(文章正宗)》의 법을 터득하여, 가끔은 근체문(近體文)에 가까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서너 편에 불과하니 만에 하나 그 본의(本義)를 훼손함은 없을 것이다.

전후 세 사람의 손을 거쳤으니,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 야은(桝隱) 전 선생(田先生)이 가장 먼저 함포(合浦)에서 간행하였고, 그 뒤에 관성(管城)⁹³⁾에서 이어 간행했는데, 두 본이 서로 증감(增減)이 있다. 경태(景泰) 초년에 한림시독(翰林侍讀) 예(倪)선생이 지금 통행본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해 주었다. 거기에 수록된 시와 문장은 구본에 비해 수배나 되므로 이름을 《대전(大全)》이라 하였다. … 성화(成化) 8년 임진 4월 상한(上澣)에 봉정대부(奉正大夫) 행 함양 군수 진주진 병마동첨절제사(行咸陽郡守晉州鎭兵馬同僉節制使) 김종직(金宗直)이 삼가 발문을 쓴다.”⁹⁴⁾

위를 종합해서 보면, 옥천본의 간행은 강희중(姜淮仲)이 1419년(세종 1)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다음 해(1420년, 세종 2)에 전예(田藝)를 통해서 『고문진보』를 보고 나서, 옥천 군수 이호(李護)에게 중간(重刊)을 감독하도록 하여 수개월 후에 간행을 완료한 것으로, 고려말 함포본과는 원문과

92) 진녹생, 『桝隱逸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권4 附錄.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姜淮仲).

93) 옥천(沃川)의 신라 경덕왕대의 명칭이 관성(管城)이다.

94) 진녹생, 『桝隱逸稿』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권4 附錄. 「詳說古文眞寶大全跋」(金宗直).

주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⁵⁾

담양전씨 9세인 전예(田藝)는 전녹생의 둘째 아들인 항(恒)의 첫째 아들로 자(字)는 춘백(春伯)이고, 호(號)는 죽당(竹堂)이다.⁹⁶⁾ 향공학생(鄉貢學生)으로 1399년(정종 1) 식년시(式年試)에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고⁹⁷⁾ 강희중에게 『고문진보』를 보여준 당시에는 공주(公州) 교수(教授)로 있을 때였다.

강희중의 본관은 진양(晉陽)이다.⁹⁸⁾ 이색(李穡)에게 사사하였고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 1418년(태종 18)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으며⁹⁹⁾ 1420년(세종 2) 충청도 관찰사 재임 시에 『선본대자제 유전해고문진보』의 간행을 명하였다.¹⁰⁰⁾

우리나라 역사에서 관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말인 1388년(창왕 1)의 일로¹⁰¹⁾ 이전의 안렴사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¹⁰²⁾ 안렴사의 품계가 낮고 임기 6개월에 불과했던 것과는 달리, 관찰사는 품계가 높은 양부(兩府) 출신으로 임기가 1년이었으며, 국왕으로부터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하사받는 막강한 지위로, 충청도 안의 모든 고을은 충청도에 파견된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¹⁰³⁾ 관찰사의 기능은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던 ‘도관찰출척사겸감창안집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都觀察出척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라는 긴 직함이 말해 주듯이 도내

95) 이에 대하여 천혜봉은 전녹생 간행의 무주(無註) 합포본이 초간(初刊)이며, 전예(田藝)의 유주(有註) 관성본(옥천본)은 계간(繼刊)이라고 정리하였으며(천혜봉(1974), 112), 정재철은 옥천본이 원에서 구입한 구본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정재철(2007), 5), 전해지는 합포본을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하여 합포본과 옥천본의 원문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다.

96) 『담양전씨대동보(潭陽田氏大同譜)』 <<http://www.damyangjeon.co.kr>> [접속일 2019.8.5.]

9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조회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國朝榜目』(한조 26-47)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國朝文科榜目』(奎 106-v.1-8)의 자료를 참조 함.

98) 진양강씨는 모두 고려 말기의 장군 강이식(姜以式)을 시조로 삼는다. 강이식의 후손인 공목공(恭穆公) 강시(姜蓍)는 1339년 지주(晉州)에서 태어나, 1357년(공민왕 6) 성균관시(成均館試)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390년(공양왕 2)에 추충보조공신(推忠輔佐功臣)의 훈호를 받았다. 강시에 의해 가문의 위상이 격상되었고, 그의 첫째 아들인 통정(通亭) 강회백(姜淮伯, 1357~1402)과 둘째 아들 통계(通溪) 강희중(姜淮仲, ?~ 1421) 두 형제는 조선왕조에 출사하여 가문의 기반을 닦았다(허권수, 『晉陽姜氏 恭穆公派 家門의 형성과 전개』, 『남명학연구』 제51집(2016), 33-44).

9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100) 정재철은 옥천본의 간행년을 성종 23년(1492)으로 보았는데(정재철, 『고문진보 연구』 (서울: 문예원, 2014), 11-12), 이는 연대 고증의 오류이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강희중이 충청도관찰사로 재직했던 해는 1420년(세종 2)에 해당한다.

101) 『高麗史節要』 卷33. 禡王 14年(新昌 卽位年, 1388) 8月.

“改諸道按廉使, 爲都觀察黜陟使, 賜敎書鈇鉞, 以遣之. 皆用臺諫之薦, 楊廣道政堂文學成石璘, 慶尙道前平壤尹張夏, 全羅道前密直副使崔有慶, 交州江陵道前密直商議金士衡, 西海道密直提學趙云佐. 令各舉副使判官, 改量土田.”

102) 임선빈(2002), 29.

103) 충청도에 파견된 관찰사의 명칭은 ‘충청도관찰사’가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었으나, 충청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청공도관찰사·청흥도관찰사·공충도관찰사·공청도관찰사·공흥도관찰사·홍충도관찰사·홍청도관찰사·호서감사·호서관찰사 등의 명칭도 사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충청도 감영이 금강을 끼고 공주에 위치하였으므로, 충청감영을 ‘금영(錦營)’이라 칭한 것처럼 충청도관찰사를 ‘금백(錦伯)’이라고 일컫기도 하였다(임선빈(2002), 33). 이는 책판목록이나 간기를 제외한 서·발문 등의 문문을 근거로 하여 충청도 또는 충청감영의 인쇄출판과 관련한 기록의 수집 시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의 수령을 비롯하여, 외관에 대한 관찰출척의 고유 업무와 함께 감창(監倉)·안집(安集)·전수(轉輸)·권농(勸農)·관학(管學)·형옥(刑獄)·병마(兵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¹⁰⁴⁾ 감영(監營)에서는 서적의 간행, 향시(鄉試)의 시행, 관내 향교의 관리 업무, 국왕을 대신한 각종 의례와 제사의 주관 등을 행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¹⁰⁵⁾

충청도의 관찰영역은 1399년(정종 1)에 강원도의 영춘현(永春縣)을 이속 받고, 1413년(태종 13)에 전국이 8도로 정리되면서 경상도에 들어있던 옥천·황간·영동·보은을 포함하게 되어 지금의 충청남·북도 영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¹⁰⁶⁾ 이 당시 행정구역은 오늘날과 같이 도청과 소속 기초단체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목(牧)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을이 군(郡)과 현(縣)을 거느리는 형태로, 충주목·청주목·공주목·홍주목에 작은 고을이 소속되어 있었고, 옥천군은 청주목에 속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고을 간에 영속관계나 주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조선 초기 지방 군현을 연결하는 상위기구로 8도의 관찰사제(觀察使制)가 확립됨에 따라, 이들 고을이 행정적으로는 병렬적인 관계로 관찰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¹⁰⁷⁾

충청도관찰사의 근무처인 충청감영은 조선 초 충주에 있었는데¹⁰⁸⁾ 청주에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¹⁰⁹⁾ 임진왜란 이후 1603년(선조 36) 공주로 이전¹¹⁰⁾되어 한말까지 존속되었는데, 공주에 충청감영이 새로이 개영되기 이전과 이후는 관찰사의 근무형태 및 감영의 운영 양상이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초기 관찰사의 근무 형태는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주로 도내를 순력(巡歷)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영시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¹¹¹⁾ 1603년(선조 36) 공주에 충청도 감영이 개영 된 때부터 충청도관찰사가 공주목사를 겸하게 되고, 관찰사 유근(柳根, 1549-1627)이 1606년(선조 36)에 유영(留營)을 파함으로써 충청도관찰사는 공주에 정착하게 되었다.¹¹²⁾ 따라서 충청감영의 인쇄출판활동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¹¹³⁾ 그 이전에는 관찰사의 명령에 의한 책의 출판 실무는

104) 조선초기 관찰사의 긴 겸직명칭은 관찰사제가 확립됨에 따라 겸직이 갖고 있던 기능을 ‘관찰사’라는 본직 속에 포함하게 되면서 겸직 부분의 명칭[兼 이하의 20자]은 사라지고 ‘관찰사’로 불리우게 되었다(임선빈, 『충청도 관찰사 기초연구』 (논산: 충남발전연구원, 2002), 96).

105)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2008), 134.

106) 공주시지 편찬위원회(2002), 300.

107) 공주시지 편찬위원회(2002), 300-301.

108) 임선빈(2002), 95. ; 공주시지 편찬위원회(2002), 300.

109) 『世宗實錄地理誌』 忠淸道. “改稱 忠淸道觀察使 置司淸州.” ; 김성수,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서지학연구』 제45집(2010. 6), 35에서 재인용.

110) 공주감영의 이전 시기는 대체적으로 1603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임선빈의 연구에 자세하다(임선빈(2002), 95).

111)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535&cid=40942&categoryId=33383>>. [접속일 2019.8.11.]

112) 임선빈(2002), 95.

113) 충청감영의 (인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도 공주감영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2008), 113-144. ; 이훈상, “조선후기

감영이 주도하기보다는 목·군·현 단위로 전개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조선시대 청주목(淸州牧)에서 간행된 도서의 주제별 간행사항을 분석한 김성수(2010)의 연구에서, 간기(刊記) 미상(未詳)의 도서들이 29종(70.7%)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영이 고정적으로 자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 관찰사가 중앙의 명령을 받아서 간기(刊記) 및 인출(印出)의 연유(緣由)를 밝혀 간행된 관찬도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는데¹¹⁴⁾ 이 또한 충청감영의 공주 개영 이전시기의 인쇄·출판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 감영의 출판은 주로 왕명에 의한 경우와 지역 감영의 주도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관찰사의 주도로 간행된 경우에는 대체로 관찰사의 개인적인 의도, 즉 혈연·지연·학연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다.¹¹⁵⁾ 이렇게 간행된 책은 국가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¹¹⁶⁾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기록에는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드물고, 주로 현전하는 서책의 간기(刊記)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¹⁷⁾ 옥천군이 속해있던 청주목에서 간행된 책의 경우에는 간기미상의 도서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¹¹⁸⁾ 간기 대신에 본문의 내용(서·발문)을 통해 간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옥천에서 간행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는 충청도관찰사의 명령에 의해서 간행되었으나, 간행된 1420년(세종 2)은 충청감영이 공주에 자리 잡지 않은 시기로, 감영의 인쇄출판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이고, 충청감영의 간기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바, 충청감영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책판목록¹¹⁹⁾에서도 옥천에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는 “각 관청 서책의 판본(板本)은 맡은 자가 마음을 써서 관리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지게 하였으니, 마땅히 소재한 곳의 관리로 하여금 정돈하여 거두어 두게 하라”는 1421년(세종 3)의

충청도 감영의 영방과 향리사회의 기록물과 그 특성,” 『古文書研究』 제50호(2017. 2), 203-228. ; 김소희,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책판 - 조선 후기 公州監營을 중심으로 -, ” 『서지학연구』 제72집(2017. 12), 275-303.

114) 김성수(2010), 54-57.

115) 옥영정, “조선시대 완영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12), 456-460.

116) 이것과 관련하여, 지방관의 문집 간행을 사적 행위(개인적 출판)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손계영의 연구가 주목된다. 지방관이 간행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중에 체직되었을 경우 후임 수령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부임지에서 간행을 재작수하는 점, 문집간행 경위를 기록하며 ‘봉급을 내어’(出俸金) 또는 ‘捐俸錢’) 간행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간행을 주관하였던 지역과 관계없이 책판의 소장처를 해당 후손의 근거지로 이동시키고자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嶺南學』 15(2009), 262-263).

117) 옥영정(2011), 458-459.

118) 김성수(2010), 57.

119) 책판목록의 조사는 정형우와 윤병태가 편찬한 『한국책판목록총람(韓國冊板目錄總覽)』(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에 책판목록(冊板目錄) 21종, 서지(書誌) 12종, 지지(地誌) 107종 등 모두 140종의 문헌에 나타난 책판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찾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별 책판목록의 원문은 정형우와 윤병태 편찬한 『한국의 책판목록(韓國의 冊板目錄)』(서울: 保景文化社, 1995)의 <도별 관아명 및 지명 검색 일람표>(149쪽)를 활용하여 “옥천(沃川)”, “청주(淸州)”, “충청감영(충청감영의 후기 소재지였던 ‘공주’는 제외)” 항목에서 조회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기사를¹²⁰⁾ 근거로 보면, 옥천에서 『고문진보』가 간행될 당시(1420년, 세종 2)는 지방 책관의 관리시스템이 형성·정착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옥천에서 제작된 목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 그 지역의 책관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이인영(李仁榮)의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서는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후집(後集)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續撰本 『攷事撮要』를 근거하여 책관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전주·순창·창원·진주·평양·함흥으로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 零本一冊
存卷五至八本板四周雙邊有界十行二十一字注雙行匡郭長一九・〇 浬廣一三・五 浬按許筠續撰本
攷事撮要全州淳昌昌原晉州平壤咸興藏古文眞寶冊板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後集 十卷一冊
覆前揭刊本前後數葉落本板四周雙邊有界十行二十一字注雙行匡郭長一九・〇 浬廣一三・五 浬¹²¹⁾

다만 『경국대전』에 따르면 옥천군이 소속된 청주목에는 조각장(雕刻匠)은 없으나 지장(紙匠)이 6명, 목장(木匠)이 1명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책판 제작에 필요한 종이와 나무를 다루는 고정 인력이 배치되어 출판 시에 활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²⁾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지속되었고, 지식인들의 관심도 급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왕조의 교체와 더불어 생겨난 변화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삼게 된 것이다. 허권수는 “강희중이 조선 초기에 이 책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조선조 일대를 통해서 이 책은 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필독서가 되었고, 한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¹²³⁾고 평가하였는데, 중국 유가문학의 대표적 선집인 『제유전해고문진보』는 조선 초 지식인들의 수요에 부합되는 책이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고문진보』의 간행 및 보급의 시작은 바로 이 옥천본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에 있다고 하겠다.

4.2.2 국내 현전본의 서지사항

앞서 살펴본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는 조선에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라는 명칭으로 간행되었다.¹²⁴⁾ 김윤수는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와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는 “선(善)자(字), 괴(魁)자(字) 한 글자만 다를 뿐 서명(書名)이 같은 동류(同種)의 책”이라고 보았고¹²⁵⁾ 정재철은 “전녹생과 이호가 중간한 판본은 간행 년대로 보아 모두 괴본(魁本) 계통의

120) 『世宗實錄』卷11, 世宗 3年 2月 5日(戊戌).

“各官書冊板本, 主者不爲用心照管, 致使散棄. 宜令所在官吏整頓收貯.”

121)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庫社, 1993), 244-245.

122) 『經國大典』工典, 外工匠, 忠淸道.

123) 허권수(2016), 44.

124) 강찬수(2006), 84. ; 정재철(2007), 5.

판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는데,¹²⁶⁾ <합포본>은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원판본(元板本)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와 <옥천본>을 같은 계통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서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의 일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옥천에서 간행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서지사항 및 국내 현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및 대학별 온라인 소장목록을 통하여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라는 서명으로 조사하여 국내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서지사항을 1차 정리하였다. 원문DB의 확인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판내 열람이 불가능한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책의 서지사항은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항만을 기입하였다. 개별 소장기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판내 열람을 통하여 실물 책을 확인하여 온라인 목록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리하였다.

<표 1> 국내 현전본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서지사항

구분	전집(前集)		후집(後集)			
현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성암고서박물관 ¹²⁷⁾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암고서박물관 ¹²⁸⁾
판종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간행년	-	1420	1420	-	-	1420
간행지	-	沃川	沃川	-	-	沃川
권책수 (소장 기준)	卷1-5. 1冊	卷1-9. 1冊	卷7-10. 1冊	卷6-10. 1冊	卷1-10. 1冊	卷5-10. 1冊
변란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판곽(cm)	18.1×12.7	18.5×12.7	18.3×12.8	18.4×12.7	18.3×12.5	18.5×12.9
계선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有界
행자수	10行 21字 註雙行	10行 21字 註雙行	10行 21字 註雙行	10行 21字 註雙行	10行 21字 註雙行	10行 21字 註雙行
흑구	黑口・白口	-	白口	白口	白口	-
어미	上下内向黑魚尾	内向黑魚尾	上下内向黑魚尾	上下内向黑魚尾	上下内向黑魚尾	内向黑魚尾
책크기(cm)	24.2×17.2	26.2×17.2	23.3×15.0	24.6×16.7	24.4×16.5	23.2×15.3
청구기호	MF(고서귀) 298 0	성암4-237	古3745-201	D819.082-황14 ㅅ-v.2-2	想白古895.18-Se 64-v.2	성암4-238
비고	마이크로필름	원문 확인 불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실물 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 데이터베이스	원문 확인 불가

125) 김윤수(1988), 190.

126) 정재철(2006), 228.

127) 성암고서박물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상의 서지사항만을 기재함.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옥천본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전집의 권책수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후집에 대해서만 이인영(李仁榮)의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 10권 1책으로 되어 있다.¹²⁹⁾ 원판본(元板本)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가 전집 10권 1책, 후집 10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¹³⁰⁾ 옥천본이 원에서 구입한 『괴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를 수정 없이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로 간행된 것으로 전제한다면¹³¹⁾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전집 또한 10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는 전집(前集)이 권1의 권수제면이 빠진 상태로, 1-5권만 소장되어 있으며, 흑구와 백구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후집(後集)은 판중, 변란, 계선, 행자수, 흑구, 어미가 일치한다.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후집 두 가지(零本 1책, 10권 1책)의 서지사항이 四周雙邊, 有界, 10行 21字, 註雙行, 匡郭 19.0cm×13.5cm로 기술된 바와¹³²⁾ 비교한다면, 광곽의 크기를 제외하고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후집 권1~10이 소장되어 있지만 충해 등으로 인해 판본상태가 좋지 않으며, 권10의 상당량이 후인(後人)이 필사한 것을 엮은 체제로 되어 있다.¹³³⁾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도 넘길 때 손이 자주 닿는 하단과 중봉 부분이 많이 닳아있고, 심한 곳은 종이가 떨어져 나가있다. 또한 황변현상으로 인쇄가 희미해진 곳은 필사로 채워지는 등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완전한 원문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마지막 장에는 강희중(姜淮仲)이 남긴 간행 기록¹³⁴⁾이 국내 소장본 중 유일하게 남아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128) 상동.

129) 李仁榮(1993), 244-245.

130) 이즈미 신(和泉新)(1989), 13. ;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1998), 1612. ; 강찬수(2006), 84.

131) 정재철(2007), 5.

132) 李仁榮(1993), 244-245.

13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접속일 2019.8.8.]

134) “此編所載詩文 先儒精選古雅 表而出之 承學之士所當矜式也 前朝時 壁隱田先生祿生出鎮合浦 董戎之暇 募工刊行 由是 皆知是編有益於學者 然其本歲久板昏 且無註解 觀者病焉 歲在己亥 予丞乏觀察忠清 越明年 公州教授田藝出示此本 有補註明釋 瞭然於心目 因囑沃川守李護 監督重刊 未數月而告畢 於戲 豈非斯文之一幸哉 今以二本讎校 則舊本頗有壁隱先生所刪所增 故與今本中間微有小異耳 愚於此論辨 并諗諸後學云 時永樂龍集庚子孟冬下澣 嘉靖大夫 忠清道都觀察黜陟使晉陽姜淮仲謹誌.”



<사진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후집의 권말 간행기록
(청구기호: 古3745-201)

현재 서지사항의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전·후집을 포함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옥천에서 간행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서지사항 및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고증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소장 판본의 계통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 론

고려 말에 전녹생에 의해서 최초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고문진보』는 공민왕대의 복잡한 대내·외적 정세 속에서 1366년(공민왕 15) 전녹생이 외교사절로 학관첩목아를 빙문(聘問)하러 갔다가 목적이 아닌 경유지인 연경(燕京)에서 구해온 것으로, 원에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가 갓 출판되어 유통되던 때에 전녹생의 개인적인 책 구입 활동으로 고려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1367년(공민왕 16) 전녹생이 함포에서 경상도도순문사로 근무하는 여가에 『고문진보』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고르게 발달해온 고려 말 지방인쇄술과 그에 따른 공인의 존재와 활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석두창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인구의 집중과 교통망의 발달은 출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420년(세종 2)에 옥천에서 『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의 간행은 공주 교수로 부임하고 있던 전녹생의 손자 전예가 충청도 관찰사 강희중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본 강희중이 옥천군수 이호에게 간행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충청도관찰사의 명령에 의해서 간행되었으나, 충청감영의 인쇄출판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이고, 감영 간기도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바, 충청감영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조선 최초 간행본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한 『상설고문진보』 이전의 『제유전해고문진보』의 수용과 간행은 시간적으로 고려 말-조선 초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충청도로 걸쳐 있는데, 『제유전해고문진보』라는 책의 유입과 간행양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는 보다 연속적 관점으로, 지역적으로는 보다 통합적 시각으로 책의 유통 및 출판 및 유통 양상을 고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經國大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桂苑筆耕集』.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0. 소장정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奎 106-v.1-8). 원문이미지: 한국고전종합DB
-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高峯全書』. 기대승 지음, 성백호·이성우 옮김.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7.
- 『國朝文科榜目』.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조회. 소장정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奎 106-v.1-8)
- 『國朝榜目』.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조회. 소장정보: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한古朝26-47)
- 『潭陽田氏大同譜』. 담양전씨대종회 <<http://www.damyangjeon.co.kr/g2h2/go2page.htm>>
- 『東國李相國集 3』.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고전국역총서 168》
- 『東文選 Ⅱ』.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고전국역총서 26》
- 『惺所覆瓿稿』.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1.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74》
- 『新增東國輿地勝覽 Ⅳ』.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1. 《고전국역총서 43》
- 『野隱逸稿』. 전녹생 지음, 박찬수 옮김.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본

역총서》

- 「於于野談 2」, 柳夢寅 지음, 玄惠卿 · 金忠實 · 申仙姬 역주.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東洋古典國譯叢書 31》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正史全文 標校讀本) 後漢書」, [南朝·宋]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民國] 楊家駱 主編. 臺北: 鼎文書局, 1979(영인 보급처: 서울: 韓國學資料院, 1985).

2. 장서목록 · 책판목록

- 서유구(徐有渠).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1941.
- 정형우, 윤병태. 「한국책판목록총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마에마 코오사쿠(前問恭作). 「古鮮冊譜」 第1冊. 서울: 신학문사, 1994.
- 李仁榮. 「淸芬室書目」. 서울: 寶庫社, 1993.
- 臺灣商務印書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675冊, 史部433: 目錄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臺灣商務印書館 編.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676冊, 史部434: 目錄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中國古籍善本書目 集部(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3. 사전

-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國語國文學資料辭典 · 下」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5.
- 瞿冕良. 「中國古籍版刻辭典」. 濟南: 齊魯書社, 1999.

4. 단행본

- 공주시지 편찬위원회. 「공주시지(상권)」. 공주시: 공주시청 문화관광과, 2002.
- 김동욱. 「고려사대부 작가론」. 서울: 박이정, 2004.
- 김충열. 「한국유학사 1」. 서울: 예문서원, 1998.
-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학주. 「중국문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16.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마산시사편찬위원회. 「마산시사」. 마산: 마산시, 1997.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파주: 돌베개, 2008.
- 范曄 著, 李賢 註, 陳起煥 譯註. 「原文 譯註 後漢書(九)」. 서울: 明文堂, 2019.
-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옥천군지편찬위원회. 「옥천. 2, 역사와 전통」. 옥천군: 옥천군지편찬위원회, 2015.

유창준. 「한국 인쇄 문화사」. 서울: (주)지학사, 2015.

이즈미 신(和泉新). 「古文眞寶」. 東京(japan): 學習研究社, 1989.

임선빈. 「충청도 관찰사 기초연구」. 논산: 충남발전연구원, 2002.

천혜봉. 「高麗 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1980.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10.

허홍식. 「高麗科擧制度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1.

5. 연구 논문

강찬수. “中國刻本 《古文眞寶》에 대한 연구.” 「中國文學研究」 제32집(2006). 73-93.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2017. 6). 199-208.

김광철. “고려시대 함포 지역사회.” 「한국중세사연구」 제17호(2004. 10). 5-25.

김성수. “忠淸監營과 淸州牧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서지학연구」 제45집(2010). 33-63.

김윤수. “《詳說古文眞寶大全》과 《批點古文》.” 「中國語文學」 제15집(1988). 179-228.

김윤수.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 제5·6합집(1990. 6). 355-401.

김인호. “고려 후기 전녹생의 삶과 절의.” 「포은학연구」 제16집(2015). 51-80.

남재우. “骨浦國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경계」 54(2005). 131-158.

박문열. “高麗時代의 科擧書籍政策에 관한 研究.” 「創立十周年 紀念論文集」(1993). 39-54.

박문열. “忠北 古印刷文化의 概觀.” 「博物館報」 11(1998). 3-42.

박문열. “고려시대 충북의 인쇄출판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淸大學術論集」 제1집(2003). 237-258.

박원호. “고려말 조선초 대명외교의 우여곡절.” 「한국사 시민강좌」 제36집(2005. 2). 62-99.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2009). 229-269.

엄경흠. “高麗後期 對中國使臣 送詩에 表現된 外交認識의 變化와 그 意味.” 「동양한문학연구」 제27집(2008). 277-301.

옥영정. “조선시대 완영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집(서지학회, 2011. 12). 433-470.

이강한. “고려 공민왕대 정부 주도 교역의 여건 및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2011. 12). 195-240.

이시찬. “宋元時期 高麗의 서적 수입과 그 역사적 의미.” 「東方漢文學」 제39집(2009). 309-336.

이장우. “明나라와 朝鮮의 『古文眞寶』.” 「중국과 중국학」 제1권 1호(2003). 177-197.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2008). 113-144.

정재철. “韓·中·日 刊『古文眞寶』의 比較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26호(2006). 211-245.

정재철. “『제유전해고문진보』 연구.” 「東洋學」 제42집(2007. 8). 133-157.

- 전혜봉. “古文眞寶大全에 대하여 - 趙炳舜氏 所藏本을 中心으로 -.” 『歷史學報』 제61집(1974). 103-122.
- 최연주. “12·13세기 전적 간행의 유형과 그 성격.” 『考古歷史學志』 17·18 合輯(2002). 21-43.
- 하정승. “야은(桝隱) 전녹생(田祿生)의 시문(詩文)에 나타난 고려 후기 사대부의 면모와 정신.” 『포은학연구』 제20집(2017). 187-225.
- 허권수. “晉陽姜氏 恭穆公派 家門의 형성과 전개.” 『남명학연구』 제51집(2016). 33-72.

6. 전자정보원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네이버캐스트』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8737&categoryId=58737>>
- 『담양전씨대종회』 <<http://www.damyangjeon.co.kr>>
-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Donggukvisangjuk Jip.

Dongmunseon.

Eowooyadam.

Gobong Jeonseo.

Gukjo Mungwabangmok.

Gyewonpilgyeong Jip.

Gyongguk Daejon.

History of Goryeo.

Houhanshu.

Mungwabangmok.

Seongsobubugo.

S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The genealogy of Damyang Jeon Family in Korea.

Yaeon Ilgo.

Choi, Yeon-Joo. 2002. "The Style and Characteristic of Book Publishing in the Early 12 and 3th Centuries." *Journal of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17 · 18: 21-43.

Chon, Hye-bong. 1974. "Critical comments on Son's Studies of Kuwên Chên-pao-Tachuan(古文眞寶大全)." *YOKSA HAKBO*, 61: 103-122.

Chon, Hye-bong. 1980. *A Study on the Printing Technique in Goryeo Dynasty*. Seoul: Kyungin Publishing.

Chon, Hye-bong. 2010. *Bibliography of Korea*. Seoul: Minumsa.

Compilation committee of The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2004. *The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Paju: Hanul Publishing Group.

Eom, Kyung-Hum. 2008. "Changes and their Significance of Diplomatic Recognition Expressed in Valedictory Poems for the Envoys to China in the late Goryeo Dynasty."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27: 277-301.

Gongju City Hall. 2002. *Records on the History of Gongju City*. Gongju: Gongju City Hall.

Ha, Jung-seung. 2017. "The Spirit of Nobleman Appeared in Poems of Yaeon-Jeon Noksaeng." *Journal of Poem Studies*, 20: 187-225.

Heo, Heung-Sik. 1981. *Examination System of Goryeo Dynasty*. Seoul: Ilchokak.

Heo, Kweon-soo. 2016.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Gongmok Tribe in Jinyang Kang Clan." *The Nammyonghak Study*, 51: 33-72.

Jeong, Hyoung-Woo [et al.]. 1979. *a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woodblock list of Korea*.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eong, Hyoung-Woo [et al.]. 1995. *Woodblock list of Korea*. Seoul: Bo-kyung Munhwasa.

Jung, Jae-Chul.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Guwenzhenbao(古文眞寶)』 Published in Korea, China and Japan: A Consideration about the Distribution Aspect of Chinese Writing Text Books." *Journal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Korea*, 26: 211-245.

Jung, Jae-Chul. 2007. "A Study on the Zhurujianjiuguwenzhenbao." *The Oriental Studies*, 42: 133-157.

Kang, Chansoo. 2006. "A study on Chinese woodblock-printed Guwenzhenbao."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32: 73-93.

- Kim, Chung-Yeol. 1998.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1*. Seoul: Yemunseowon.
- Kim, Dong-uk. 2004. *The Literature of High Officials of Koryo Dynasty*. Seoul: Pagijong Press.
- Kim, Gwang-Cheol. 2004. "Happo(合浦) Local Society in the Goryeo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eval History*, 17: 5-25.
- Kim, Hak-chu. 2002. *A Study on the Books Related to Chines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ouncil.
- Kim, Hak-chu. 2016. *Understanding of Chinese literature*. Seoul: Shinasa.
- Kim, In Ho. 2015. "A Study for Jeon, Noksang(田祿生)'s Life and His Mind to Fidelity." *Journal of Poeun Studies*, 16: 51-80.
- Kim, Kyeong-lok. 2017. "The deployment of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Foreign relations of King Kongmin period."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64: 199-208.
- Kim, Sung-Soo. 2010. "An Analysis of the Books Published by Chungcheong-Gamyeong Provincial Offices and Cheongju-Mok Regional Offic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5: 33-63.
- Kim, Yun-Su. 1988. "《Xiangshuo Guwen Zhenbao Daquan》 and 《Pidian Guwe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5: 179-228.
- Kim, Yun-Su. 1990. "Taein Panggakbon 《Xiangshuoguwenzhenbaodaquan》 and 《Sayoquseo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 · 6: 355-401.
- Lee, Eung-baek [et al.]. 1995.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eoul: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 Lee, In-young. 1993. *Collection of Books in Chungbunsil*. Seoul: Bogosa.
- Lee, Jang-Woo. 2003. "『Gomunjinbo』 of Ming Dynasty and Joseon Dynasty." *China and Chinese studies*, 1(1): 177-197.
- Lee, Kang-hahn. 2011. "The Trade Policy of King Gongmin-wang's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Korean Studies Quarterly*, 34(4): 195-240.
- Lee, Si-Chan. 2009. "The significance of the books exchange between Korea and Song-Yuan Dynasty." *Dongbang Korean Classics*, 39: 309-336.
- Lim, Seon-bin. 2002. *Preliminary Study about Chungcheong-do Kwanchalsa*. Nonsan: ChungNam Institute.
- Masan City Hall. 1997. *The Hostory of Masan City*. Masan: Masan City Hall.
- Mayema Kyosaku. 1994. *Koseoncheakbo*. Seoul: Shinhakmunsa.
- Nam, Jae-Woo. 2005.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olpokuk." *History & the Boundaries*, 54: 131-158.

- Ok, Young-Jung. 2011. "A Study on the Printing Culture of Wan-Young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0: 433-470.
- Okcheon-gun Council. 2015. *Okcheon 2, History and tradition*. Okcheon: Okcheon-gun Council.
- Park, Hee-Byoung. 2008. *Confucianism and the genre of Korean literature*. Paju: Dolbegae.
- Park, Moon-Year. 1993. "The Book Policy in Relation to the Examination System of Goryeo Dynasty." *A collection of articles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39-54.
- Park, Moon-Year. 1998. "A Study on the Printing Culture of Chungcheongbuk-do." *Journal of Museum*, 11: 3-42.
- Park, Moon-Year. 2003. "A Study on the Policies of Printing and Publishing Culture of Chunbuk Areas in the Goryeo Dynasty." *The Journal of Sciences and Arts*, 1: 237-258.
- Park, Won-Ho. 2005. "Ups and Downs of Joseon-Ming Diplomacy during the Late Goryeo-Early Joseon Period." *Civic Lecture of Korean History*, 36: 62-99.
- Ryu, Tag-Il. 1989. *The Study on the Korean Philology*. Seoul: Asia Munhwasa.
- Seo, Yu-Gu. 1941. *Nupango*. Kyung-sung: Daedong publishing.
- Son, Ke-young. 2009. "Local Officials and Their Publications of Ancestor's Miscellany." *YOUNGNAMHAK*, 15: 229-269.
- Yim, Seon-bin. 2008. "The Results and Tasks of Arrang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Chungcheong Gamyeong."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11(2): 113-144.
- Yu, Chang-Jun. 2015. *Cultural History of Printing Technology In Korea*. Seoul: JHAKSA PUBLISHING.
- Fan Ye [et al.]. 2019. *Houhanshu (9)*. Seoul: Myungmundang.
-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 Studies. <<http://kostma.korea.ac.kr>>
- Damyang Jeon Family Reunion. <<http://www.damyangjeon.co.kr>>
- Doopedia. <www.doopedia.co.kr>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classical comprehensive database. <db.itkc.or.kr>
- KORCIS(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nl.go.kr>>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e-kyujanggak.snu.ac.kr>>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istory net. <<http://contents.history.go.kr>>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Korean History Database. <<http://db.history.go.kr>>
- NAVER CAST.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8737&categoryId=58737>>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Historic Figures Database. <<http://people.aks.ac.kr>>

